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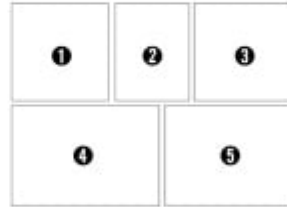
영상 부문 프로젝트

9개 팀 지원, 5개 팀 선정
심사위원: 권헌준, 송국선, 유지영, 정재한

사업 취지에 맞게 '코로나19 극복', '희망', '미웃', '공동체' 등의 키워드를 가진 작품이 많았으며, 이를 키워드를 가지고 홍보영상, 드라마, 뮤직비디오, 다큐멘터리, 토탈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영상으로 표현하고자 한 시도들이 인상적이었다.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은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달서구만의 특색 있는 먹거리를 취재하여 소개한다는 내용으로 작품의 공공성이 돋보였다.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모여 대구 각 명소를 배경으로 각자의 예술 활동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Not alone>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속, 떨어져 활동하던 예술가들이 모여 협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동인아파

트 재개발 문제를 통해 그곳의 이웃과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동인아파트, 272의 토탈주>는 이미 많은 리서치와 푸티지를 보유하고 있어 이 작업이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기대되는 작품이었다고. <대구 청년 탐구생활>은 드라마 형식으로 코로나 이후 현재 대구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변화된 모습을 5개의 에피소드로 풀어내는 방식이 흥미로웠다. <닥터 두의 코로나19 극복기>는 한 신경외과 의사를 찾는 다큐멘터리로 국가적 재난과 위기 속에 한 개인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극복하려 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 관객들의 많은 공감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❶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 최민열

대구를 주제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팀 스튜디오 산중호걸.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달서구 월광수변공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수밭골 웰빙음식거리의 건강한 음식을 소개

"단순히 음식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료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매력을 이야기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❷ <Not alone> 김제윤

감독 김제윤, 작가 김혜인, 작곡가 손정호, 보컬리스트 김영근, 이채원, 드러머 김민건, 피아니스트 김연규, 기타리스트 오준석, 영상제작자 유서환, 최대성 등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재즈 연주자 및 영상 제작자들이 모여 함께 진행하는 뮤직비디오

"비슷한 경험을 하고 각자의 방법으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공유하며 공감과 위로를 느낄 수 있길 기대합니다."

❸ <동인아파트, 272의 토탈주> 김미련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동인아파트의 시간과 공간을 비선형적 내러티브에 기반한 연상적인 교차편집으로 철거를 앞둔 동인아파트 50년의 시공간과 삶을 기록

"개인의 삶이 꺾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속, 변화될 수 있는 공동체가 가능한 도시재생의 모습은 어떠한가? 제 작품은 그러한 질문의 한 단면일 것 같습니다."

❹ <대구 청년 탐구생활> 이우진

평화롭던 어느 날 우리의 일상을 한순간에 바꾸어버린 코로나19. 광범한 생활을 누리던 청년들은 지금까지 누리고 지내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바뀐 세상 속 여러분은 안녕하신가요?

"힘을 모으고 서로 응원하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❺ <닥터 두의 코로나19 극복기> 김성환

반월당에서 '두신경외과'를 운영하는 한병인 원장이 코로나19로 인한 병원 내적인 어려움을 극복함과 동시에 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기획하고 있는 과정을 관찰한 단편 다큐멘터리.

"코로나19로 직위 월급과 월세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은 한병인 원장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기 위해 시도를 하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